2위 서울-3위 울산 치열했던 명승부 | 이것이 축구다



울산 현대의 김보경(14번)이 3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종료 직전 동점을 만다는 헤딩골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 막바지까지 1-2로 뒤지던 울산은 김보경의 짜릿한 골로 극적인 동점을 이뤄냈다.
상암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브라질 vs 아르헨티나 코파아메리카 4강 격돌

남미축구의 정상을 가리는 2019 코파 아메리카의 4강 대진이 확정됐다. 페루와 칠레,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3팀은 모두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코파 아메리카는 결승을 제외하고는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를 한다.

페루는 30일(한국시간)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난적 우루과이와 전·후반 90분을 0-0으로 마친 뒤 승부차기 끝에 5-4로 이겼다. 2015년 이후 다시 준결승에 오른 페루는 7월 4일 칠레를 상대로 44년 만의 결승행에 도전한다.

역대 최다인 15회 우승을 자랑하는 우루과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의 정상을 노렸으나 페루에 가로 막혔다. 특히 우루과이 간판스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는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서 실축을 하고선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디펜딩 챔피언 칠레는 콜롬비아와 8강전에서 VAR(비디오 판독)로 골이 취소되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결국 승부차기(5-4)로 물리치고 4강에 올랐다.

조별예선에서 부진했던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베네수엘라를 2-0으로 꺾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를 승부차기(4-3)로 꺾은 브라질을 상대로 3연속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5번의 대회 중 자국에서 열린 2011년 대회를 제외하고 4번이나 결승에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1993년 대회 이후 26년 만에, 그리고 홈그라운드의 브라질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스웨덴, 여자월드컵 4강행 네덜란드와 결승행 다툰다

스웨덴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4강에 합류했다. 스웨덴은 6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렌에서 끝난 대회 8강에서 통산 3번째 정상 등극을 노리던 독일을 2-1로 제압했다. 캐나다와 16강전에서 1-0으로 이긴 스웨덴은 8년 만의 4강 진출에 성공했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결승에서 당한 패배를 말끔히 씻었다. 전반 16분 리나 마굴의 첫 골로 독일이 앞섰으나 6분 뒤 소피아 야콥슨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3분 스티나 블락스테니우스의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네덜란드도 4강 대열에 합류했다. 이탈리아를 2-1로 누르며 사상 첫 여자월드컵 4강에 안착했다. 이로써 대회 4강 대진도 확정됐다. 잉글랜드와 미국이 만나고,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결승 진출을 다툰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울산 영웅 김보경, 추가시간 7분 기적의 동점골

전반전 0-2, 더 잃을것 없었던 울산
VAR무효에도 투혼 발휘 2-2 무승부
선두 전북과 승점 단 1점차 사정권에

프로축구 경기결과					▶ 28~30일
성 남	성남	1	:	0	상주
제 주	제주	1	:	1	대구
수 원	수원	0	:	0	경남
인 천	인천	1	:	2	강원
상 암	서울	2	:	2	울산
포 항	포항	1	:	1	전북

2위와 3위의 싸움. 유난히 치열해진 선두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서로를 이겨야 했다. 격차는 1점. FC서울은 정규리그 17경기에서 승점 37을 쌓았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울산 현대는 36점이었다. 누구라도 한숨 돌리려면 무조건 결과가 필요했다.

소문난 명품매치, 추가시간 7분까지 주어진 혈투는 무승부로 끝났다. 3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18라운드는 2-2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1-2로 뒤지던 울산이 후반 추가시간 종료 직전 드라마틱한 동점골을 터트렸다. 포항 스틸러스 원정에서 1-1로 비긴 전북 현대(승점 38)가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면서 순위 변동은 없었다.

킥오프를 앞둔 두 팀 사령탑들의 대화는 긴장보다는 웃음이 흘렀다. 울산 김도훈 감독이 "서울이 2위에 올라있으니 우리는 도전자"라고 하자 서울 최용수 감독은 "지나친 겸손은 자만의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물론 원정 팀은 여유가 없었다. 우라와 레즈(일본)에 밀려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 진입에 실패했다. 16강 원정 1차전을 2-1로 이긴 뒤 안방에서 0-3 대패했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었다. 순위 상승이 아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승점 3이 필요했다. 김 감독은 "연패가 많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극복하자"고 주문했다.

시작은 울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반환점으로 향하는 지금부터 서서히 부딪히려고 한다. 투혼, 열정의 경기를 홈에서 하자"는 최 감독의 의지대로 공세적으로 나선 서울과 울산은 초반부터 치고받았으나 균형은 전반 8분 만에 깨졌다. 울산 이동경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온 볼을 김태환이 재차 슛으로 연결해 골네트를 흔들었다.

이후 서울이 냉정을 찾았다. 침착한 반격을 시도했고, 전반 40분 첫 결실을 맺었다. 알리바예프가 상대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슛이 절묘하게 꺾이며 동점이 됐다. 흐름을 잡자 거칠 것이 없었다. 동점골 3분 뒤 박주영의 오른쪽 크로스를 박동진이 밀어 넣었다. 탄탄해 보인 울산의 포백수비가 갑자기 집중력을 잃었다.

후반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울산의 맹공이 계속됐다. 서울의 빈틈을 노렸고 주니오를 투입해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운이 없었다. 강해진 울산의 공세 이상으로 서울 골키퍼 유상훈의 선방 쇼도 강렬했다. 후반 3분과 21분 황일수의 슛을 온몸으로 막았다. 황일수가 후반 25분 터트린 골마저 VAR(비디오판독)로 무효 처리됐다. 김 감독은 강하게 불만을 표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쇼 타임은 끝나지 않았다. 울산은 패색이 짙어진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 오른쪽 크로스를 불투이스가 머리로 열어준 볼을 김보경이 헤딩골로 마무리하며 상암벌을 달궜다.

상암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6월을 날려버린 9위 수원, 6강 진입도 언감생심

〈3무1패〉

강등권만 벗어나면 끝? 방향성 상실
여름 이적시장 전력보강 계획도 없어
성적은 감독 책임…홈팬들 이탈 가속

수원 삼성을 둘러싼 기류가 음습하다.

수원은 2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18라운드에서 경남FC와 득점 없이 비겼다. 14승8무6패(승점 20)에 머문 수원은 한 경기 덜 치른 6위 상주 상무(승점 24)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원에게 경남전은 굉장히 중요했다. 중상위권 도약을 노린 수원은 경남~제주 유나이티드(7일·이상 홈)~인천 유나이티드(10일·원정)로 이어지는 3연전에서 최대한 승점을 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다.



이임생 감독

6월을 통째로 날려버린 수원이다. A매치 휴식기 때도 재정비하지 못했고, 3무1패에 만족해야 했다. 최대 라이벌인 FC서울에 2-4 대패를 당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홈경기를 대비하느라 주전 9명을 뺀 전북 현대와 1-1로 비겨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강한 상대에도 약하고, 꼭 넘어야 할 상대에도 강하지 못한 '만만한' 이미지만 굳어졌다.

1군 선수단만 보면 수원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서브 자원이 부족하다고 탓하는 이들도 있지만 앞선 순위에 오른 강원FC, 성남FC가 수원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고도 볼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목적의식이다. 수원은 적당히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잘되면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강 진입을 노리는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했다. FA컵이 아닌, 리그 우승을 위해 싸운 기억은 오래 전이다. 전북과 울산 현대가 각각 상하이 상강(중국), 우라와 레즈(일본)에 밀려 ACL 8강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나 수원은 아예 대회 초대장도 못 받았으니 할 말이 없다.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는 구단도 몰락의 원인이다. 명가 재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원하는 수준의 선수를 거의 데려오지 못했던 이임생 감독은 절박하다. 결국 성적의 책임은 지도자가 진다. 전북전에 이어 경남전에서도 "전력보강 계획을 (구단에) 전했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물론 대대적인 영입을 앞둔 폭풍 전의 고요함도 아니다. 한 때 K리그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뜨겁던 홈 열기는 이제 1만 명을 채우기도 버거워졌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수원의 정상화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남장현 기자

이 없으면 잇몸으로…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구

부상 공백에도 특유의 응집력 발휘
적장도 "시작과 끝이 강한 팀" 경계

K리그1 시민구단 대구FC는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부상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정상 전력을 꾸리지 못할 때가 잦아졌다. 에드가(공격수)와 츠바사(미드필더), 홍정운(수비수) 등 모든 포지션에 걸쳐 핵심 자원들이 전열을 이탈했다.

그럼에도 대구는 특유의 힘을 잃지 않았다. 18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대구는 7승8무3패(승점 29)로 4위에 랭크돼 있다. 전북 현대~FC서울~울산 현대 등 상위 3팀과의 격차가 좁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위와 격차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

29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대구의 저력이 증명됐다. 정규시간(90분) 0-1로 끌려가던 대구는 후반 48분 세징야가 골망을 흔들어 승점 1을 추가했다.

대구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력과 기동력이다. 특히 90분 내내 줄기차게 그라운드를 누비는 퍼포먼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스포츠의 오랜 격언을 확실히 실천한다.

대구는 18경기에서 24골(13실점)을 기록했다. 이 중 14골이 후반에 터졌는데 종반부인 후반 31분 이후 득점이 9차례다. 여기서 추가시간이 적용된 이후 가동된 득점포는 2회다. 앞선 서울과 17라운드 홈경기에서도 대구는 승점을 챙길 뻔 했다. 후반 종료 직전, 세징야의 골이 VAR(비디오판독)로 취소된 것이 아쉬웠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뒤 가장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팀이기도 하다. 전반전 10골 가운데 절반인 5골이 14분 이전에 나왔다. 후반 시작 직후에도 3골을 몰아쳤으니 경기 몰입도와 집중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구의 최근 흐름이 안정적이진 않다. 6월 2일 포항 스틸러스전 2-0 승리 이후 3경기 연속 무승(2무1패)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누구도 대구를 약체로 보지 않는다. 적어도 '무기력하게 패하는' 경기가 없다. 한 K리그 사령탑은 "90분 동안 전력을 쏟을 수 없는데, 대구는 시작과 끝이 특히 강하다보니 아주 껄끄럽다"고 인정했다.

대구는 기존 자원들의 복귀와 별개로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의 영입을 추진하는 등 여름 선수이적시장에서도 나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최상위권 진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남장현 기자